



"사람은 구하면 앙분을 하고 짐승은 구하면 은혜를 한다"

뜻: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줘도 고마움을 잊고 나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, 동물은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따른다는 뜻으로,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은혜 · 배신 · 비교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사	람	은	↓	구	하	면	↓	앙	분	을	↓	하	고
짐	승	은	↓	구	하	면	↓	은	혜	를	↓	한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사	람	은	↓	구	하	면	↓	앙	분	을	↓	하	고
짐	승	은	↓	구	하	면	↓	은	혜	를	↓	한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	↓				↓		
			↓				↓				↓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로ㅇ] [구하ㅁ] [ㅇ분ㅇ] [하ㅑ] [쟈ㅇ] [구하ㅁ] [ㅇ혜르] [한ㅌ]

웹에서 보기

